

## 13쌍둥이 출산 예고한 시장, 왜?

멕시코에서 13쌍둥이의 탄생이 예고돼 화제다.

멕시코주 익스타팔루카시의 헤라르도 게레로 시장은 지난 15일 의회에서 “이제 곧, 며칠 안에 13쌍둥이가 태어난다”고 말했다.

게레로는 믿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한 부부에게 단번에 13명 자식이 늘어나게 생겼다고요. 13명!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게레로가 13쌍둥이의 탄생을 예고한 건 양육비 지원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한꺼번에 13명이나 자식이 늘어나게 된 부부가 지금 벼는 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힘드니 경제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게레로에 따르면 13쌍둥이 출산을 앞둔 부부는 현직 소방관인 안토니오 소리아노 오르도네스와 부인 마리사 멘데스다.



부부에겐 이미 자녀가 6명이나 있다. 부부는 2017년 7월 첫 아들을 얻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 시작한 건 두 번째 임신부터였다. 2020년 5월 부부에겐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다. 2021년 8월 부부는 다시 쌍둥이를 얻었다. 이번엔 세 쌍둥이였다. 자녀는 순식간에 6명이 됐다.

그런데 네 번째 임신에서 13명 쌍둥이를 임태한 사실이 확인돼 이제 자녀는 19명으로 늘어날 판이다.

게레로는 “의원들과 주민들에게 부탁드린다. 소방관 부부가 19명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십시일반 힘을 모아주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세계적 사건으로 기록될 13명 쌍둥이를 포함해 19명의 자녀를 우리 함께 키워내자.”고 말했다.

익스타팔루카시는 소방관 부부 지원을 위해 지원 접수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사진=Andina/Minsa

## 주유소 직원 해고… 고유가 속 황당 실수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카운티 란초 코르도바시 한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10분의 1 가격에 팔았다가 해고됐다.

지난 9일, 란초코르도바 시주민 사이에 ‘고급 정보’가 나돌았다. 한 주유소가 휘발유를 90%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해당 소식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번졌고, 소문에 접한 많은 주민들이 거의 공짜나 다른 가격에 개스를 넣으려고 차를 몰고 주유소로 달려갔다.

주유소에선 실제로 갤런당 6.99달러인 프리미엄급 휘발유를 0.699달러에 팔고 있었다. 주유소 매니저 존 슈체치나는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휘발유 주유기



▲ 주유소 매니저 존 슈체치나(왼쪽). 잘못 설정된 주유기 가격.

사진=wthr.com

에 가격을 잘못 설정했다. 3가지 종류 휘발유 중 프리미엄급 휘발유 주유기만 가격을 잘못 입력했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다.”라고 말했다.

슈체치나의 실수로 3시간 동안 주유소가 본손해 액은 2만 달러에 달했다. 결국 주유소 측은 슈체치나를 해고했다.

슈체치나는 “이건 악동임 겨라고 생각했다.”며 착잡함을 드러냈다. 이어 “회사가 본손해에 대해선 어떻게든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졸지에 빛더미에 오른 슈체치나를 위해 그의 여동생은 모금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청하고 나섰다. 여동생은 “동생은 직장까지 잃었다.”면서 “이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든 메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슈체치나의 실수로 3시간 동안 주유소가 본손해 액은 2만 달러에 달했다. 결국 주유소 측은 슈체치나를 해고했다.

슈체치나는 “이건 악동임 겨라고 생각했다.”며 착잡함을 드러냈다. 이어 “회사가 본손해에 대해선 어떻게든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졸지에 빛더미에 오른 슈체치나를 위해 그의 여동생은 모금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청하고 나섰다. 여동생은 “동생은 직장까지 잃었다.”면서 “이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든 메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우리 동네 오시면 집 공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스페인의 한 마을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마드리드에서 2시간30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 고르마스는 최근 마을의 바(Bar)를 운영할 개인이나 가족을 모신다고 공지했다. 지원하는 개인이나 가족에겐 일자리(바 운영권)를 주는 건 물론 주거까지 마을이 책임진다. 공짜로 집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르마스가 특급 조건을 내걸고 마을의 새 가족을 찾아 나선 건 인구감소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달했기 때문이다.

스페인 통계청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고르마스의 전체 인구는 21명이었다. 면적 1,570헥타르 규모의 마을에 20명 남짓한 인구가 살다 보니 고르마스는 그야말로 허허벌판, 시골의 유령도시처럼 변해가고 있다. 당장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마을이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고르마스의 주력 산업은 밀농사이다. 겨울이 길고 추운 반면 여름은 짧고 더운 편이다. 가을은 무기이다.

마을의 랜드마크는 중세에 지어진 거대한 성이다. 과거 십자군시대 유럽에 가장 큰 요새 중 하나였던 이 성은 둘레만 1,200m에 이른다. 지금도 성벽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는 성에는 28개 타워가 세워져 있다.

시는 “마을로 오겠다는 외지인이라면 개인이든 가족이든 언제든 환영한다.”며 “생업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shutterstock

## 척추 디스크 통증에서 완전해방!!

풍부한 경험의 척추전문의와 최첨단 의료기가 만났습니다

30년간 척추디스크 및 좌골신경통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운동준 척추신경병원에서는, 21세기가 낮은 혁신적은 최첨단 무중력 입력감소 치료기 DRX9000을 갖추고 90% 이상의 현저히 높은 완치율로 고통없는 치료방법으로 다양한 척추디스크 질환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마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 디스크 (팔과 손기락 통증 및 미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뻐근한 통증/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중요)
- 하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오통/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Tennis Elbow/ 손목/Carpel Tunnel Syndrome/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미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발목통증/ 뱐증상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만성요통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0년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CA 92840